

경제

■신기록 행진 국내증시 6월은

1600대 박스권 장세 조정맨 매수 기회로

6월 국내 증시는 단기급등 부담과 하반기 기대감이 공존하는 가운데 1,60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박스권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내 증권사들은 다음 달에는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보다는 수익률 방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도주의 교체 여부에도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1,600대 박스권 장세 전망>=4월초부터 이날까지 두달 가량 코스피지수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증시 호황에 힘입어 잇따라 신기록 행진을 벌이며 1,452.55에서 1,661.80으로 무려 209.25포인트(14.4%)나 뛰어 올랐다.

에너지주 우선 편입... 금융·IT에도 관심 기울일 때

풍부한 유동성과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감이 합쳐 거침없는 랠리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가격 부담 또한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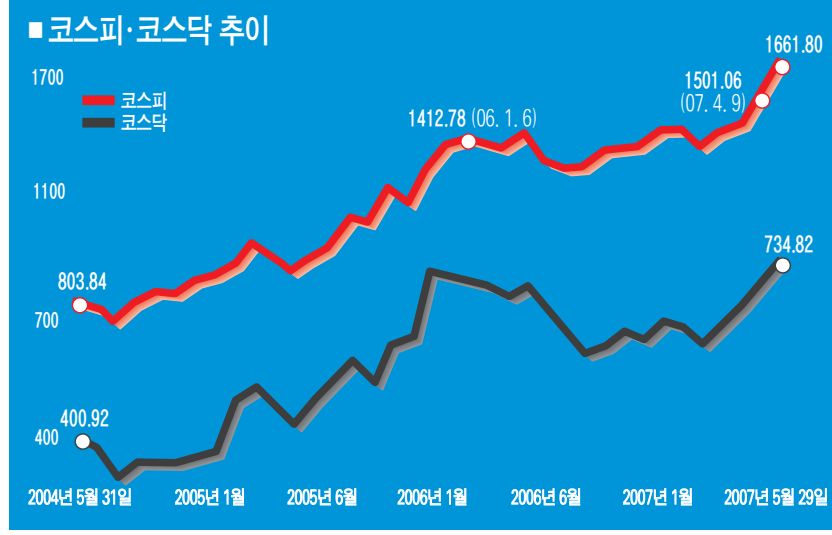
국내 9개 주요 증권사가 내놓은 6월 코스피지수 전망을 보면 저점은 1,550~1,620, 지수고점은 1,680~1,720으로 두달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지수가 다음 달에는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1,500대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증권사는 3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6곳은 1,600~1,620 사이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1,700선을 상회하는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증권사도 3곳 뿐이며 나머지 6곳은 지수고점을 1,700선 이하로 제시했다.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정보파트장은 "지수가 12주 연속 상승하면서 기술적 부담이 커진 상태"라면서 "특히 거품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중국 증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익실현 욕구" vs "추가상승 기대">=국내 증권사들은 6월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 ▲중국의 추가 긴축 ▲원자재가격 상승 및 인플



레이션 우려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 ▲미국경제의 더딘 회복 등을 꼽았다. 그러나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 하반기 편입을 개선 호재가 가세하면서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았다.

증권사들은 국내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변수로 ▲세계증시 호황 ▲저금리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 ▲하반기 경기 및 기업실적 개선 기대 ▲북한 위험 감소 등을 꼽았다.

<"주도주 교체 여부에 주목해야">=주도주의 교체 여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SK증권은 코스피지수가 하락하더라

도 깊은 조정이 아닌 얇은 조정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조정 이후 에너지와 소재, 산업재 등 기존 주도주를 우선 편입하고 후발주인 금융과 정보기술(IT)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도 내년 베이징 올림픽 전까지는 중국 내 투자증가로 수혜를 받는 조선과 기계, 철강, 화학 등이 유망하다고 추천했다.

반면 한화증권은 기계와 조선 등 기존 주도주는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하반기 내수경기 회복을 겨냥해 금융 및 내수주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국 지난 10년 서비스 산업 수출 해운운수·금융 '흑자' 관광·무역에선 '적자'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수출이 지난 10년간 운수, 금융분야에서는 흑자를 냈으나 관광, 무역에선 적자를 면치 못해 전체 생산성이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 중 중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의 공공 싱크탱크인 '지경(智經) 연구센터'는 홍콩을 비롯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 10년간 해운·항공 등 운수산업에서 70억달러, 금융재무에서 4억5천만달러, 보험에서 2억2천만달러의 누적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밝혔다. 반면 관광에선 32억달러, 무역 등 상업에선 46억6천만달러의 적자를 내 10년간 서비스 산업 전체적으로는 1억4천만달러의 누적 적자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홍콩이 물류와 관광에서 각각 42억7천만달러, 57억5천만달러 적자를 보는 등 전체적으로 67억7천만달러의 적자를 낸 것에 비해 양호한 수치다.

반면 중국은 보험에서 15억달러, 금융에서 6억4천만달러 적자를 낸 것을 제외하고는 관광(122억2천만달러), 상업(99억4천만달러), 운수(8억2천만달러)에서 모두 흑자를 기록, 10년간 서비스산업 수치 누적액이 208억달러에 달했다.

이와 함께 2000~2004년간 한국 생산성 증가율은 1.05%로 중국(3.41%), 홍콩(1.52%)보다는 낮고 대만(0.43%), 싱가포르(-0.89%)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생산성 증가율은 1980~1984년 -0.14%, 1985~1989년 1.80%, 1990~1994년 1.17%, 1995~1999년 0.75% 등의 비교적 순탄한 길을 걸어왔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시작한 1980년부터 5년 단위로 4.02%, 4.48%, 4.69%, 3.78%, 3.41%의 폭발적인 생산성 증가율을 보여왔고 대만은 0.88%, 2.70%, 1.92%, 0.73%, 0.43%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개발업자 '한탕주의' 경고

건교부 서종대 본부장 "토지대행업무 축소"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29일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소위 '땅작업'에 따른 막대한 이익 쟁취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서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날 서초동 외교센터에서 개최된 한국디벨로퍼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 "앞으로 분양가상한제와 민간택지의 택지비 인정 문제로 인해 토지대행 업무는 축소될 것"이라며 "부동산 개발업자들도 그 일관 갖고는 먹고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부동산 개발업자 가운데는 사회적 역할과 평가를 고려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탕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사업하는 분들도 있다"며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또 "단순히 땅을 갖고서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이익을 쟁취고, 그런 행태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보다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제대로 기획, 관리할 수 있는 진정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의 시행과 시공 업무가 분리되면서 우후죽순 등장한 영세 부동산 개발업체(시행사)들은 그동안 응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토지개발 업무를 통해 큰 이윤을 창출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분양가와 아파트값 상승과 직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시행되는 부동산 개발업법은 무분별한 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가 5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연합뉴스



'소외계층 사랑' 송정농협(조합장 나훈) 농촌사랑봉사단원들이 29일 관내 42개 경로당과 7개 체육운영학교에 전달할 김치(1천200여포기)를 담고 있다. 농협은 소외계층에 대한 김치와 쌀 전달 외에 지역사랑예금 출연 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송정농협 제공>

"재벌·총수가 반기업정서 만든다"

KDI 공무원·기업인 등 8개 집단 2,611명 조사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反)기업정서'의 실체는 일반적인 기업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재벌과 재벌총수에 대한 반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업에 대한 호감도는 경제전문가 집단이 가장 높고 노조간부가 가장 낮았으며 기업부도의 책임은 경영자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무원과 종교교 사회담담 교사중 절반가량이 기업의 최우선 목표를 '이윤 창출'이 아니라 '이윤의 사회환원'이라고 답해 경제정책 입안이나 경제교육에 적지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반기업정서의 실제 파악을 위한 조사 연구'

자료에서 우리 사회내 각 집단들을 상대로 전화, 이메일, 대면면접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5년 7월18일부터 8월22일까지 1개월여에 걸쳐 실시했으며 대상은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1천24명)과 교사(520명), 공무원(300명), 경제전문가(교수포함·213명), 기업인(200명), 언론인(103명), 시민단체(NGO)간부·노조간부(각 100명), 국회의원(51명) 등 총 2천611명이었다.

KDI는 이번 조사결과가 특징이 반기업정서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재벌과 재벌총수들의 올바르지 못한 경영행태에 의해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라며 기업 스스로 정도경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사나 공무원, 노조간부 등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세제지원 등의 유인책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의 조사결과와 노조간부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집단에서 기업에 대한 반감을 보인 응답보다 호감을 보인 응답이 많았으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인, 전문경영인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이 강한 호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재벌과 재벌 총수,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전문가와 공무원을 제외하면 대체로 반감을 나타내는 응답이 많았고 부자에 대해서도 반감 표시가 많았다. /연합뉴스

해외 카드 씹씹이 사상최고 1분기14억 500만달러어치 사용

해외여행객의 급증과 환율하락 효과가 겹치면서 올해 1·4분기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이 또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분기별 신용카드 해외사용액은 최근 30% 이상의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불과 2년 사이에 거의 2배로 늘어났다. 이에 반해 외국인들이 국내시장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계속 감소하면서 2년반만에 최저수준으로 추락했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중 신용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거주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해외 사용금액은 14억500만달러(약 1조3천500억원)로 작년 동기에 비해 34.3%나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인원도 197만5천명으로 23.8% 늘었으며 1인당 사용금액은 712달러로 8.5% 증가했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분기실적은 물론 사용인원, 1인당 사용금액 모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1분기중 내국인 출국자수는 331만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20.2%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외국인 입국자수 144만명의 약 2.3배에 해당한다.

2005년 1분기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실적은 7억9천만달러였으나 2분기 9억700만달러, 3분기 9억7천400만달러, 4분기 9억7천600만달러에 이어 2006년 1분기는 10억4천600만달러로 처음으로 10억달러선을 돌파했다.

작년 2분기는 11억5천100만달러, 3분기 12억8천100만달러, 4분기 13억3천만달러 등으로 분기마다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금융업계 CEO살펴보니 평균 57세·광주일고 출신 5명

국내 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의 전형은 57.3세로 재임기간은 3.6년,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발간된 '월간 CEO' 6월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집계한 국내 매출액 1천대 기업 내 금융계 CEO 76명의 프로필을 조사한 결과, 출생지는 서울이 11명(14.5%)으로 가장 많았고, 출신 고교는 경기고가 10명(13.2%), 출신 대학은 서울대 22명(28.9%), 전공은 경영학이 24명(31.6%)으로 우위를 점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계 CEO의 평균 연령은 57.3세로, 1952년생이 13명(17.1%)으로 가장 많았고 1947년생과 1950년생이 각각 8명(10.5%), 1948년생과 1953년생이 각각 6명(7.9%)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최고령 CEO는 1938년생인 흥국생명보험의 유석기 부회장이며, 최연소 CEO는 1961년생인 서울증권 강찬수 대표이사, 한국씨티그룹캐피탈 김두현 사장,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사장이었다.

출생지는 서울이 11명(14.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부산, 전남이 각각 10명(13.2%), 경북과 대구가 7명(9.2%), 충남이 6명(7.9%), 전북과 충북이 각각 4명(5.3%)이었다. 외국인 CEO는 7명이었다.

출신 고교는 경기고가 10명(13.2%)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제일고, 부산고가 각각 5명(6.6%), 경남고 4명(5.3%), 고려고가 3명(3.9%)이었다. /연합뉴스

10달러, 1달러 10장으로 못바꾼다?

외환銀 바꾸려면 수수료 지급해야... 국민·신한·하나은행은 가능

규정에 따라 화폐 권종을 곧바로 바꿔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영업점 직원은 A씨에게 "10달러를 먼저 한화로 환전한 뒤 다시 1달러를 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담당 직원의 말대로 10달러를 한화로 우선 바꾸게 되면 이날 외환은행의 현찰매입율인 달러당 912.55원을 적용받아 9천125.50원을 받게 되고 이를 다시 환전하면 현찰매도율인 달러당 945.05원을 적용받아 결국 9,660달러(9,125.50/945.05원)밖에 살 수 없게 된다. 돈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 10달러 지폐를 은행에 내도 1달러짜리 지폐 10장을 손에 쥌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측은 "외국 통화는 해외에서 사들여 오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다 금액종류별로 사들여오는 비용이 다르기때문에 권종 교환이라도 반드시 매입·매도 절차를 거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환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한 고객일 경우 매입증명서를 가져오면 곧바로 권종을 교환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은행들은 이같은 매입·매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종을 교환해주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권종 교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창구에서 고객이 원할 경우 곧바로 교환해준다"면서 "다만 영업점 취급사정에 따라 큰 금액의 경우는 바뀌지 못할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권종 교환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위폐의 위험도 있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1만달러를 1달러짜리로 교환해달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만 아니면 적절한 선에서 교환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1달러 10장으로 교환증...